■인문학 위기라는데…

광주·전남 주요대학 실태는?

지원 줄고 폐과 늘고 … '비인기' 실감

광주·전남 주요 대학의 인문대학 진학 희망 학생이 해마다 줄고 일부 학과는 신입생 부족으로 폐과를 앞두고 있는 등 인문학 기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각 대학에 따르면 전남대의 경우 인문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

대학원 진학률도 감소

들이 줄면서 입시 경쟁률이 지난 2003년 6.44대 1에서 2004년 5.1대 1, 2005년 4.6대 1, 2006년 4.24대 1로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조선대 역시 인문과학대학의 입시 경쟁률이 지난 2004년 3.82대 1에서 2006년 3.43대 1로 줄어들었다.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해 인문학을 계속 공부하려는 학생들도 줄어들어 전남대 인문대학 졸업생의 대학원 진학률이 2005년 16%에서 2006년 12.5%로 감소했다.

조선대는 지난해 8월과 올 2월 인문과학대학 졸업자 309명의 5.5%인 17명만이 대학원에 진학하는데 그쳤다.

호남대의 경우 역사문화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 없어 지난 2004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 호남대는 또 현재 3·4학년에 다니고 있는 학생 20여명이 졸업하면 폐과시킬 예정이다. 역사문화학과는 정원이 30명이지만 현재 다니고 있는 학

역사문화학과 모집 중단

생은 정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인문학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줄고 있는 것은 취업률 저조보다는 진학을 앞둔 상당수 학생이 산업화·경쟁사회 속에서 성장, 시장논리에 익숙해지면서 인간의 삶을 지적으로 고양·함양할 수 있는 인문학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평현 전남대 인문대학장은 "문명의 발달로 삶이 윤택해진 만큼 이제는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도록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령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아이들의 창조력,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 논술이 만들어졌는데 현재의 논술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인문학을 살리려면 초·중등교육, 특히 획일적 논술교육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

교원성과급 또 지급

전교조 반발 속 2차분 1,420억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올해 성과급 예산 4천898억원 가운데 1차 지급분(71%) 3천478억원에 이어 2차 지급분(29%) 1천420억원을 추석 이전에 지급토록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성과급 총액 가운데 20%를 상위 30% A등급, 중간 30~70%는 B등급, 하위 30%는 C등급 등 3개 등급으로 나눠주도록 했다. A등급은 41만4천670원, B등급은 38만4천650원, C등급은 36만2천60원을 받는다.

1,2차 지급분을 합하면 두 차례 모두 A등급을 받은 교원과 두 차례 모두 C 등급을 받은 교원은 연간 성과급에서 18만3천원 차이가 난다.

성과급은 시도 교육감이나 교육장, 단위 학교장이 보직 여부·수업시간·포상 실적·근속연수 등을 따져 지급 방법을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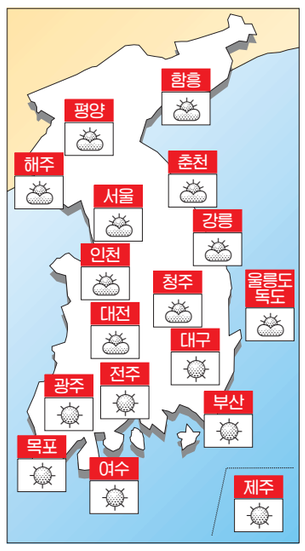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활짝갠 가을하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조금.

9월 27일 (음 8월 6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조금	15~25℃
목포	구름조금	15~24℃
여수	구름조금	17~24℃
완도	구름조금	14~26℃
구례	구름조금	12~27℃
해남	구름조금	11~26℃
장흥	구름조금	11~25℃
고흥	구름조금	13~26℃
순천	구름조금	12~27℃
영광	구름조금	13~25℃
진도	구름조금	13~27℃
전주	구름조금	14~27℃
남원	구름조금	10~26℃
정읍	구름조금	14~26℃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목포 밀물 04:23 17:05 썰물 09:37 22:07
여수 밀물 11:25 23:21 썰물 04:47 17:25

▲해뜸 06:24 ▲해짐 18:23 ▲달뜸 10:42 ▲달짐 20:3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8(목)	29(금)	30(토)	10/1(일)	2(월)	3(화)
날 씨						
최저/최고	15/25	14/26	14/26	14/25	14/25	15/24

조선대 개교 60돌 기념 '대동제' 조선대 개교 60주년을 기념하는 '2006년 대동제'가 26일 교직원·학생·지역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학 교정 곳곳에서 시작됐다.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동제의 캐치 프레이즈는 '스. Fun. 知'로 '스'는 올해 스무 살 20대, 'Fun'은 젊음·열정·끼·낭만을 즐기자!, '知'는 마시자·놀자가 아니라 지성인답게 즐기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사진은 떡메로 찰떡을 치며 즐거워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전남 4년제 대학 등록금

조선대 602만원 '최고'

한려대 594만원·전남대 370만원

사립대 작년보다 6.6% 인상

광주·전남지역 4년제 대학 중 등록금이 가장 비싼 학교는 조선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2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선대에 다니는 학생의 올 한해 등록금 총액은 602만6천원으로 광주·전남지역 국·공립 및 사립대를 통틀어 가장 비쌌다.

사립대에서는 광양 한려대(594만4천원), 광주 남부대(586만4천원), 목포가톨릭대(586만2천원), 동신대(585만8천원), 호남대(578만7천원), 초당대(556만5천원) 등이 비교적 등록금이 비쌌다.

전국 4년제 사립대의 올해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지난해보다 6.6% 인상된 647만2천원이었다.

지역 국·공립대에서는 전남대가 370만2천원으로 가장 비쌌고, 목포대(326만4천원), 순천대(317만5천원), 목포해양대(276만4천원), 광주교대(243만4천원) 순이었다.

전국 국·공립대의 올해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지난해보다 10% 오른 342만6천원이었다.

■광주·전남 대학 2006 등록금 현황

〈단위:천원〉

대 학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	인상율
목포대	3,264	7.5%
목포해양대	2,764	6.3%
순천대	3,175	2.9%
전남대	3,702	7.3%
광주교대	2,434	8.4%
광신대	5,223	10.8%
광주가톨릭대	0	0.0%
광주대	5,326	6.8%
광주여대	5,421	3.7%
남부대	5,864	5.6%
대불대	5,420	1.1%
동신대	5,858	6.5%
명신대	4,772	-7.8%
목포가톨릭대	5,862	4.3%
영산선학대	2,000	0.0%
조선대	6,026	6.3%
호남대	5,787	4.9%
초당대	5,565	8.1%
한려대	5,944	6.8%

한편 전국 대학 중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을지의대로 1인당 평균 783만원에 달했다.

최 의원은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려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등록금의 부당한 인상을 막기 위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가을철 일교차 줄었다

온난화 영향 최저기온 상승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목포 등 주요 도시의 가을철 일교차가 지난 1940년대에 비해 1~1.4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우리나라의 가을철 일교차 및 주변 해수면 온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01~2005년 목포 등 6대 도시의 9월 일교차 평균은 7.9도로, 1940년대(1941~1950년)의 8.9도에 비해 1도 낮았다고 26일 밝혔다.

10월은 10.5도(1940년대)→9.1도(2000년대), 11월은 10.1도(1940년대)→8.7도(2000년대)로 각각 측정돼, 1.4도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가을 일교차 평균은 지난 1910년대~1930년에는 계속 증가하다가, 1940년대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상청은 지구 온난화에 의해 최저 기온이 높아져 일교차의 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수면 온도는 동해·서해·남해 모두 지난 1968년 이후 약 1도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사업주 안전조치 소홀 사망땐

7년이하 징역·최고 1억 벌금형

광주지방노동청 적용

앞으로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올해 3월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법 가중처벌 조항'을 26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가중처벌 조항' 벌칙 제66조 2항 등은 '근로자의 사망재해와 사업주의 안전·보건 상의 조치의무 위반이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청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근로자 사망·2명 이상이 3개월 이상 부상·10명 이상 부상)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뿐만 아니라 ▲지시·감독을 받는 직원 ▲보조자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광주지방노동청 관내의 경우 지난해 3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며, 올해는 7월 말 현재 25건에 달한다.

한편 노동부가 지난 7~8월 50인 미만 사업장 2천582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상태를 점검한 결과에서는, 88.3%(2천279개)의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광주지역 미혼모 80%

"편견·경제력 때문에 입양"

광주 지역 미혼모 대부분이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양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한사회복지회 미혼모 쉼터 '우리집'(원장 이선희)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2005년까지 쉼터를 다녀간 미혼모 1천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출산한 아이에 대해 입양을 의뢰했다'고 답했다. 직접 기르겠다는 미혼모는 13%에 그쳤다.

임신 이유는 '교제 중 원치않는 임신'이 70%를 차지했다. 임신을 알게 된 시기도 '임신 중반기 이상'이 50%로 나타났다.

출산 이유로는 '낙태 시기를 놓치거나 돈이 없어서'가 80%로 많은 미혼모가 낙태를 고려하거나 실제로 낙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쉼터를 방문한 미혼모 150여 명 중 40%는 10대였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